

디젤차 맞아? 120km에 무진동... 탈수록 압도되는 명차



제네시스 'GV80'

실내 디자인 고급스럽고 깔끔
주행보조 첨단기술 대거 적용
고속에서 순간 가속력 아쉬워

‘럭셔리디자인·안정적주행감·첨단기술...’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은 출시가 늦어지면서 소비자들의 갈증도 깊어졌다. 그러나 출시와 함께 소비자들의 이런 갈증은 완벽하게 해결됐다. 최첨단 기술 적용과 럭셔리 디자인 등을 앞세워 GV80은 출시 첫날 1만 5000대 계약을 성사했다. 그동안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수입차 브랜드가 장악했던 럭셔리 SUV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미디어 시승행사에 참여해 GV80의 매력을 분석했다. 시승 코스는 고양시 킨텍스를 출발해 인천 송도 경원재



제네시스 GV80 주행사진.

엠버서더 호텔까지 왕복 120km로,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자유로 등 고속구간과 시내 구간을 골고루 주행했다.

GV80의 전체적인 느낌은 G90의 SUV라는 느낌이 들었다. 당당한 외모와 럭셔리함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그동안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유출된 모습과 달리 날렵함까지 갖추고 있다. 일자형의 날렵한 LED 퀵드래프와 측면을 가로지르는 두 줄의 캐릭터라인, 쿠페처럼 푹 떨어지는 루프라인은 우아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살렸다.

전폭은 현대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와 동일한 1975mm로, 럭셔리 차에 걸맞은 충분한 좌우 공간을 제공해주지만 전장은 팰리세이드보다 35mm 짧은 4945mm로 부담스럽게 크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덩치에 비해 낮은 전고(1715mm)를 갖춰 안정감을 준다.

실내 디자인은 고급스럽고 깔끔한 공간성으로 럭셔리 대형 SUV 품격을 갖추고 있다. 전면부 중앙을 가로지르는 송풍구 디자인을 통해 수평적인 공간감을 강조하고 실내 중앙부의 조작버튼 개수를 줄여 운전자가 편안함을 느



제네시스 GV80 실내.

낄 수 있도록 했다.

주행성능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움속 안정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단단한 하체를 중심으로 뛰어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차량과 달랐다. GV80의 심장은 새로 개발한 3L 직렬 6기통 디젤엔진을 적용, 최고 출력은 278마력, 최대토크 60.0kgf·m다.

차량 시동을 걸었지만 디젤 엔진 특유의 진동은 느껴지지 않았다. 가속페달을 밟자 부드럽게 주행을 시작했다.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을 깊게 밟으니 빠르게 속도를 높여갔다. 120km를 넘어

섰지만 품질음이나 노면진동과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만큼 차체 균형감과 품질음을 완벽하게 잡아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속에서 순간 가속력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순간 GV80 가속린 3.5터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조향 성능과 서스펜션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아 누구나 부담없이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했다. 차선을 변경하고 고속에서 코너링을 하는데도 차체가 단단하게 받쳐졌다.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 현상은 느껴지지 않았다.

또한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한 주행보조 시스템은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 해줬다. 고속도로주행보조(HDA)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키면 운전대에 손만 얹어놓고 운전자는 딱히 컨트롤하지 않아도 된다.

연비도 만족스러웠다. 공인 연비(22인치 타이어 10.6km/L)를 훌쩍 뛰어넘는 12.1km/L를 기록했다. 달릴수록 명차의 가치를 더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GV80 3.0 디젤 모델의 가격은 6580만원부터 시작해 풀옵션은 897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ST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승차거부 없는 예약제·무료 와이파이가 차별화에 집중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마카롱택시 안마기 '두두' 설치
타다 와이파이, 충전기 등 제공

‘마카롱택시’ ‘타다’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마카롱택시와 타다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 와이파이·충전기·생수·마스크 같은 기본 편의물품에 전문교육을 이수한 드라이버, 승차거부 없는 예약제 호출방식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주목받은 마카롱택시는 올해부터 실시간으로 호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KST모빌리티는 차량용 안마기 전문업체 공유미와 업무제휴를 맺고 차량용 안마기 서비스 ‘두두’를 혁신형 택시 브랜드 ‘마카롱택시’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KST모빌리티는 마카롱택시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휴를 진행했다. 양사는 차량용 안마기 ‘두두’를 먼저 서울 지역에서 운행하는 직영 마카롱택시와 마카롱모범 등 100대에 설치해 2월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공유미가 개발한 차량용 안마기 ‘두

두’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부위별 맞춤 마사지가 가능하며, ‘폴더블’ 형태로 택시차량 내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다. 감지센서를 통해 착석 시 자동으로 안내멘트 및 무료시연 서비스를 제공한다.

KST모빌리티는 마카롱택시를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료 와이파이·생수·마스크 등 기본 편의물품이 비치되어 있으며, 특히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영유아 카시트는 부모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들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이동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는 손님에게 말 먼저 걸지 않기, 실내서 담배 안 피우기, 공기청정기 설치, 와이파이와 충전기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탑승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했다. 이후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기존 택시 업체와 달리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항 이동 예약 서비스 ‘타다 에어(AIR)’ 특가 상품을 선보였다. 특가 상품의 할인율은 최대 20%로, 공항 출발·도착일 전날 오후 5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현대위아, 후륜 차량용 ‘전자식 차동 제한장치’ 양산

0.25초 내 주행동력 배분... 주행 안정성 ↑

제네시스 GV80에 장치 적용
주행상황 따라 구동력 제어
‘반응속도’ 세계최고 수준

현대위아가 국내 최초로 후륜 차량용 전자식 차동 제한장치(e-LSD)를 양산한다. 이 장치는 제네시스의 첫 SUV인 ‘GV80’에 적용되며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대위아는 후륜 구동 기반의 전자식 차동 제한장치(e-LSD)의 개발을 마치고 양산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생산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현대위아 창원2공장에서는 연 약 6만대 규모로 이뤄진다. 국내 자동차부품사가 후륜 차량용 e-LSD를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생산하는 e-LSD는 최근 출시된 제네시스의 첫 SUV인 GV80에 장착된다.

현대위아가 개발한 e-LSD는 자동차의 주행 상황에 따라 바퀴에 전달하는 구동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부품이다. 노면과 주행 상황에 따라 좌우 바



현대위아의 한 직원이 20일 경상남도 창원시 현대위아 창원2공장에서 전자식 차동제한장치(e-LSD)를 만들고 있다 /현대위아

퀴의 구동력을 알맞게 배분해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직진 주행 상황에서는 바퀴의 왼쪽과 오른쪽에 동일한 동력을 배분하다가 급격한 선회 주행 혹은 눈에 빠지는 상황 등 한쪽 바퀴가 헛돌 수 있을 때에는 반대편 바퀴에 동력을 집중해 탈출을 돕는 식이다. 특히 고속으로 코너를 돌 때 운전자의 의도대로 회전이 되지 않는 문제인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 상황에서 좌우측 바퀴에 동력을 적절히 배분하여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현대위아는 e-LSD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반응 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이용, 노면 상태와 주행 상황에 따라 차량에 발생하는 미세한 압력 변화를 인지하고 0.25초 이내에 최적의 주행 동력을 배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바퀴에 전달할 수 있는 최대 토크 용량은 235kgf·m으로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승용 및 SUV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현대위아는 후륜 차량용 e-LSD 양산으로 4륜구동 부품 폴-라인업의 양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네 바퀴를 동시에 굴리는 구동 부품인 PTU·ATC·전자식 커플링에 이어 전·후륜 차량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e-LSD까지 갖추게 된 것. 현대위아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완성차로의 4륜구동 부품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캐딜락 “올해 대형 SUV 등 신차 5종 출시”

신차 도입·경영 계획 발표

캐딜락이 올해 신차 5종을 출시한다. 대형 SUV와 중형 세단 등 주요 세그먼트 라인업을 확보하게 된다.

캐딜락은 20일 주요 신차 도입 계획 및 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캐딜락은 우선 지난해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세일즈, 애프터서비스, 마케팅 등 전사적인 시스템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직개편과 딜러 발굴 및 지원 확대, ‘윈 스톱 서비스’ 구축 등이다. ‘에스칼라’ 콘셉트 디자인을 도입한 ‘리본 CT6’를 출시해 기틀을 마련했다고도 평가했다. /김재용 기자 juk@

캐딜락은 올해 4개 모델을 새로 출시할 예정이다. 대형 SUV XT6와 콤팩트 SUV XT4, 중형 세단 CT5와 퍼포먼스 세단 CT4 등이다. XT5 부분변경까지 합치면 5종으로, 캐딜락이 국내에 진출한 후 가장 많은 숫자다.

‘젊고 역동적인 브랜드’로서의 포지셔닝 전략도 강화한다.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제품에 이어, 20대 고객을 위한 브랜드 경험 확대와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